

---

# 2021년 제6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2. 5. ~ 2. 1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      |             |     |       |
|------|-------------|-----|-------|
| 프로그램 | 특특 사이다경제    |     |       |
| 방송일자 | 2020. 2. 5. | 시청률 | 0.103 |

### 【총 평】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상황과 백신도입 일정 등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 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례수입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여타 백신 도입 일정도 도표로 정리해 좋은 정보가 되었다.

지난 5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전략, 공공추진 계획과 전망, 과제 등을 분석하고 점검했다. "2025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주택 쇼크 수준'이라고 표현한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대로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린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내용과 공공 직접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해 수용자 만족도를 이끌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역기능으로 우려돼온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관리방안도 소개했다. 특히, 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의 취지가 잘 드러났고 왜 공공 주도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설득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2025년까지 83만 가구 공급,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이라는 내용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두루 살펴 보았다. 주택공급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고 특히 공공 개발과 패스트트랙 방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이번 대책의 지향점을 소구력 있게 전달했다.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신개발 모델을 도입하였고 기존의 민간주도 재개발을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여 패스트트랙을 밟겠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용도지역의 종상향, 법적 상한 용적률의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양도세 비과세,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청약기회가 없던 실수요자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약가점이 낮던 3040세대를 위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1세대 1주택 공급, 지분 쪼개기 방지,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또, 투기 억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분 석기획단의 조사, 과열지역 제외 및 지구지정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알뜰신집'은 골다공증의 예방 및 관리법을 소개했다. 골다공증 질환의 의미와 환자추이, 발생원인, 도움이 되는 음식 등 질환에 대해 시청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 프로그램 | 국민리포트       |     |       |
|------|-------------|-----|-------|
| 방송일자 | 2020. 2. 5. | 시청률 | 0.000 |

## 【총 평】

국민기자들이 취재한 분야가 경제·교육·환경·문화·복지 등 다양했고, 전체적인 주제는 '아름다움'이었다.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유익을 준 아름다운 이야기,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아름답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독일 학생들의 아름다운 극복기, 지자체의 아이디어 정책 덕분에 지역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공유하기, 故 김영택 화백의 손끝에서 탄생한 펜으로 그린 아름다운 작품,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연합하여 행복 도시락을 배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 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봄꽃 시장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 수수료 부담 덜어줘요...배달 공공앱 '인기'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자체의 공공배달 앱 개발과 이용률, 편리성, 민간 배달앱에 비해 10배 저렴한 수수료, 공공 배달앱 지자체 확장 계획,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대안으로 공공앱을 소개했다.
- 자원 재활용 위한 분리배출... '나부터 실천!'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 분리 배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분리 배출의 네 가지 요령,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가 제대로 전달이 잘 되었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소개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앱'이 소개되어 유익했다.
- 독일 전면 이동제한 연장...동포 학생 하루 일상은?  
독일 베를린에 거주중인 한인 학생들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을 취재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호기심을 이끌어 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상을 겪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 행복도시락 나눔...노숙인 돕고 식당도 살리고  
집밥 도시락이라 불리는 '행복 도시락'은 중구 명동 천주교회와 회현동 골목시장 연합회가 SK 대기업과 연합하여 만든 결정체로 일주일에 1,400개 도시락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누는 '노숙인-골목식당 소상공인-대기업 SK의 아름다운 프로젝트'이다.
- 역사문화자원 소개 '만화 안내판' 눈길  
광주광역시 동구의 학운동 홍림교와 계림1동 경양방죽 등 역사문화자원을 만화 영상 콘텐츠로 개발한 지자체의 문화정책을 소개했다. 만화안내판은 만화 컷을 돌리거나 넘기면 다음 컷을 볼 수 있는 회전형 만화안내판과 만화책자형 안내판으로 제작됐다.
- 펜화 거장 故김영택 화백...작품으로 만나다  
예술성과 기록성을 함께 보여주는 펜화의 세계를 구경할 수 있어 좋았고, 한국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거장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프로그램 | 길 따라 인문학    |     |       |
|------|-------------|-----|-------|
| 방송일자 | 2020. 2. 6. | 시청률 | 0.217 |

### 【총 평】

경기도 이천의 역사적 사건과 임금의 진상품이 된 이천 쌀 이야기 그리고 도자기 역사와 전통을 풀어낸 '전통을 잇는 쌀과 도자의 기록'을 방송했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주요 지역으로 부각되어 조선왕조의 사랑을 받아오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경기도 이천을 세세하게 소개해줌으로써 다양한 역사와 문화 전통으로 세계를 이끌 이천을 매력 있게 풀어냈다. 경기도 이천이 상징하는 고려 초기 정치 외교관 서희 선생의 업적, 임금과 문인들이 찾은 안흥지와 애련정, 약재 효험 실화로 유명한 이천 온천공원, 한강 유역 진출의 요충지이자 군사요충지였던 설봉산성, 다양한 하천과 옥토로 이뤄져 논농사와 도자기가 발달한 천혜의 땅, 2010년 7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천, 서광수 명장의 도자기 사랑 등을 다양하게 담았다.

### 【구성 및 내용】

무력 대신 외교로 강동 6주를 수복한 고려의 외교관인 서희의 본관이자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을 둘러 봤다. 화려한 영상이 이천을 소개해 볼거리가 많았다. 이천의 명물 서희 장군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손정미 역사 소설가가 등장해 당시 고려의 외교 정세와 서희 장군의 외교술과 업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서희 장군 추모관에서는 외교술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당시 고려의 상황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이천은 삼국시대에 한강을 차지하려던 삼국의 각축이 심했던 지역으로 명월암, 설봉산성 등이 유명하다. 조선 성종 임금님의 수라상에 이천 쌀을 진상하였던 것으로 이천 쌀이 매우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떡 방앗간 사장님은 “쌀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오고 좋은 쌀로 떡을 만들면 역시 맛이 좋다”고 말했다. 이천은 벼 생장에 필요한 기후와 토양, 일조량이 많아 쌀 생산의 최적화 지역이다.

도자기의 고장 이천은 고려청자를 500년만에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천 도자기를 소개하면서 도자기 명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도자기를 깨버리는 모습과 깨버린 도자기가 수북하게 쌓인 장면에서 명인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명장은 “작품마다 다르나 달 항아리는 두 개를 만들어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 다른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려 도자기의 상감 기법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덧붙여 이천 도자기의 명성을 알려주었다. 전통도예의 기법과 연구를 끊임없이 실천해나가는 도예가들이 손수 물레를 차면 전통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속에 전통을 지키기 위한 도예가와 예술인들의 투혼을 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세종과 세조가 즐겼다는 온천지와 애련정, 반룡송, 이천백송 같은 소나무, 유리 공예를 비롯해 이천에서 꽃피고 있는 갖가지 공방들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다.

| 프로그램 | 여러분의 북마크    |     |       |
|------|-------------|-----|-------|
| 방송일자 | 2020. 2. 6. | 시청률 | 0.152 |

### 【총 평】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 선수의 북한 복귀를 통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단박톡'에서는 북한의 택배 문화를 통해 북한의 유통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북한의 한광성 선수가 대북제재 대상이 된 속사정을 분석하고 북한이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급선무라는 사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해외파견 선수, 근로자 월급의 70-90%를 떼어가는 속사정과 이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 때문에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된 것이라는 점을 분석해 설득력을 높였다. 또, 북한의 택배문화 변화의 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더 좋은 삶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주민생활의 변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대북제재로 번진 외화벌이 실태를 해외에서 활약하는 '북한 유명 축구선수의 북한 돌연 복귀' 사례를 들어 설명한 데 이어 코로나19 대북제재로 달라지고 있는 북한의 실생활을 '북한의 배달문화의 변화' 사례를 통해 풀어어나가는 구성으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북한의 축구 영재였던 한광성은 2017년 유벤투스에 입단한 이래 2020년 1월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했는데,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복귀했다. 대북제재 대상인물로 스포츠선수가 포함된 것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선수 연봉의 70~90%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부터 송금된 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정체에 대해 언급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며 문 대통령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대북제재 완화가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도 명절을 맞이하여 트럭에 선물 등 짐을 싣고 배달이 이어지는 등 택배와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된다. 북한의 택배 용어를 살펴보면 '체신소'는 '우체국', '써비차'는 '택배트럭', '짐쏘기꾼'은 '택배기사', '쏘개짐 정거장'은 '택배차 정거장', '삿별이꾼'은 '짐 싣는 아르바이트생' 등 유사한 의미의 용어가 사용된다. 택배기사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차에 사람도 택시처럼 태워주어 상당한 수익을 얻는다. 북한의 택배, 배달 문화 발달로 써비차가 급증하다보니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생기다보니 북한 주민의 생활, 인식이 변화하며, 더 좋은 삶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그램 | KTV 특집 코로나19 1년, 그 후 |     |       |
|------|----------------------|-----|-------|
| 방송일자 | 2020. 2. 7.          | 시청률 | 0.007 |

### 【총 평】

KTV 특집 ‘코로나19 1년, 그 후’는 코로나 발생이후 지난 1년간의 국민 일상생활의 변화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영웅적 헌신,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원인·문제점·극복 대책 등을 분석했다. 또, 향후 백신접종 등 남은 과제를 점검하며 차후 또 다른 감염병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정부정책 효과 등을 알려 공감과 관심을 끌어냈다.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와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유지 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 국회 답변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다 울먹이는 총리의 모습 등이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 【구성 및 내용】

지난해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기록과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 치열하게 대응했던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굵직굵직한 이슈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 이 세 가지 요소의 합이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민간의 노력에 방점을 찍은 점이 특징적이었다.

2020년 인천인 대상을 받은 장수영 간호사의 이야기와 정세균 총리에게 편지를 보낸 보라매병원 간호사 이야기는 열정과 고뇌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 밖에 인천 남부초등학교 교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검사 의료진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고, 직업인으로서 코로나 시국에 대처하는 그들의 희생과 사명감이 강한 울림을 주었다.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적극적 참여로 거점전담병원이 신설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임시선별진료소도 대유행의 불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현장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은 점도 좋았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기록으로 국난 극복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 국민 일체감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초등학교 비대면 화상 졸업식 장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대변화를 인상적으로 보여준 구성이 공감도와 흡인력을 높였다. 이 밖에 진단검사 요원, 간호사의 땀과 눈물 등 의료진의 활동을 근접 취재해 의료진의 열정과 희생적인 노고를 부각한 구성이 돋보였다.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종식 후 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자 마스크 벗고 여행가고 싶다는 간절한 답변이 돌아왔다. “1년 동안 모두 수고했습니다.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마무리 자막이 절실함을 담아냈다.

| 프로그램 | 살어리랏다       |     |       |
|------|-------------|-----|-------|
| 방송일자 | 2020. 2. 7. | 시청률 | 0.040 |

### 【총 평】

섬진강 지리산자락 형제봉 아래에서 술과 기타 소리로 일상의 바쁨을 달래주는 귀촌 11년 차 주인공의 특별한 주막 이야기 '행여 지리산골 주막에 오시려거든'을 방송했다.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이끌림으로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하여 자유를 느끼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안빈낙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막걸리와 기타 반주에 노래를 선물하면서 그야말로 자유와 여유로움을 즐기며 살고 있다. 주막의 오전과 오후 풍경, 그리고 동네 산책과 지인의 집 방문만으로 구성해 동네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든 점이 좋았다.

### 【구성 및 내용】

소설 '토지' 마을을 끼고 있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은 지리산 둘레길 마니아들에게는 엄마 품처럼 고향처럼 푸근한 곳이다. 마을 초입에 주인공이 운영하는 가게는 원래 잡화를 파는 마을 구판장이었는데 10년 전 귀향하면서 보금자리이자 놀이터가 됐다.

하동 악양면에 자리한 형제봉 주막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찌그러진 주전자와 술잔이 놓쳐진 테이블을 내세운 점도 주제와 잘 어울리는 감성적인 시작이었고, 이 주막은 꼭 시간을 정해서 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강조해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오랜 세월을 증명하듯 주막의 천장과 벽면은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짧은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동네로 아침 산책을 나와서 동네 구석구석을 소개했는데,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만들어놓은 벽화라고 설명을 곁들여 호기심을 풀어주었다. 젊은 예술인들이 꾸민 좁은 골목들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주인공은 20대 때부터 고향을 떠나 30년 간 부산에서 호텔리어와 사업가 생활을 하다가 도심 생활에 지쳐 10년 전 귀향했다.

낮에는 주인공의 놀이터로, 밤에는 주막으로 변하는 가게는 주인 마음대로 운영하는 느긋한 곳이다. 가게 안내 표지판도 수치로 표기하기 보다는 마음의 거리로 표현하는 등 자유로움과 독특함이 묻어있는 여행객들의 안식처이다. 주막 천정에 가득한 방문객들의 방명록도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공지영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시인들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었다. 이웃에 사는 조순희 작가와 길고양이들이 유일한 친구이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심심할 틈이 없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19로 받은 무료함과 지침을 이곳 주막에서 토해낼 수 있었던 것도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 때문일 것이다.

한편 주인공은 시골 살이 생활비도 벌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돌려줄 겸 검사겸사 지리산 숲길 등산 지도사도 신청해 보면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유롭지만 게으르지 않는, 부족한 생활이지만 인색하지 않는 주인공을 통해 섬진강이 주는 포근함과 달달한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

|      |             |     |       |
|------|-------------|-----|-------|
| 프로그램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     |       |
| 방송일자 | 2020. 2. 9. | 시청률 | 0.003 |

### 【총 평】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설 연휴 방역이 초미의 관심사인 주요 뉴스와 부처 업무계획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또,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 '사이다'를 통해 잘못 알려진 코로나 관련 보도 내용을 팩트체크로 바로잡은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신규 확진자 수와 설 연휴 방역 차단 방침 등을 전달해 신속성과 현장성을 살렸다. 이어 화이자 백신 안전접종 모의 훈련 등 관련뉴스를 연이어 보도해 집중도와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해양수산부와 소방청의 2021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는데, 해양수산부의 해운 재건과 어촌 뉴딜 계획 등이 다뤄져 관심을 유발했고, 소방청의 4차 산업시대 소방청의 빅데이터, 드론, 로봇 활용 방안 등이 소개돼 흡인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올해 해양수산부와 소방청의 업무계획 기초 자체가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해나간다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 4년차 업무 성과를 전달했고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관한 지원책, 구급출동·소방헬기 구조 능력 확대 방향, 4차 산업 시대에 소방청 기술 도입 방향 등 안전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또, 도입부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연결해서 '주택중개보수서비스 개선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중계했는데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은 내용이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오보를 바로 잡는 내용 이외에 Q&A 형식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상식 그리고 주식 불법대출 관련한 스팸에 대해 주의할 사항을 전했는데 잘못된 상식이나 정보도 오보만큼이나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를 연결해서 주택공급대책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기적 수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월드 투데이'는 영국 코로나 백신 접종, 트럼프 탄핵, 미얀마 군부 계엄령 선포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중요도가 높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굿모닝 해외토픽'은 다리 다친 강아지들 맞춤형 휠체어로 질주,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병원에서 결혼식, 상상초월 만능 로봇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 화이자 백신 안전 접종 모의 훈련, 아스트라제네카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 오늘 개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등의 사회 주요 뉴스를 전했다.

|      |             |     |       |
|------|-------------|-----|-------|
| 프로그램 | 톡톡 사이다경제    |     |       |
| 방송일자 | 2020. 2. 9. | 시청률 | 0.005 |

### 【총 평】

세계 백신 접종 현황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영국 수혜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문제까지 함께 다루었고, 14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국내 수도권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의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형태나 규모를 살펴보고 '한국판 양적완화'나 '손실보상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고 '보편지급'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명쾌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의 실태까지 두루 살피며, 국회의원별 법안 발의 내용도 비교하면서 국민여론조사까지 곁들여 충분히 신빙성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세계 코로나19 현황과 대응방안과 예방접종 실태를 살피면서 최배근 교수는 선진국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인류의 공생과 공멸에 대해 언급했다. 또,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영업제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며 제시한 보상 방안도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다.

최배근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동체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안목과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선진국 위주로 편성된 코로나19 백신 격차를 우려하면서 국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주장하여 시청자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했고, 코로나19 환경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설득력 있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부터 3차까지의 긴급재난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피고 향후 이루어질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원에 대한 공감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68%가 지급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맞춤형 방식과 보편형 방식을 두고 국회는 물론 여론도 가지각색인데 맞춤형이나, 보편이냐는 논쟁은 소모적일 수 있고, 최배근 교수는 보편 지원도 결국은 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과 손해를 극심히 보는 곳의 갈림길에서 이득을 보는 곳은 사회 연대세와 같은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과 손실을 보고 있는 곳에 대한 보상으로 손실보상제에 대한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비교하며, 재원 마련은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이 좋다는 주장이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태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무이자 국채발행 방식을 언급하며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국가채무비율 추이를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프로그램 | 국민리포트        |     |       |
|------|--------------|-----|-------|
| 방송일자 | 2020. 2. 10. | 시청률 | 0.009 |

## 【총 평】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의성을 살린 기획들이 돋보였는데, 신축년 '소띠 한-중 교류전'과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 있는 어머니께 애뜻한 사연을 띄우는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영상편지가 이목을 끌었다. '한-중 소띠 교류전'은 소 모양 거울 받침 등 중국의 희귀한 유물과 술 담는 제기 등 한국의 뛰어난 소 형상 유물을 영상으로 소개해 시각적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국민영상편지'는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가족사진과 직장생활 모습, 베트남 가족사진, 어머니께 세배로 큰 절을 올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영상에 담아 절절한 모녀의 정을 느끼게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델로 관심을 모으는 자율 주행차의 시승체험 아이템과 '독일도 인정한 K-방역' 글로벌 소식도 산뜻한 소재로 관심을 유발했다.

## 【구성 및 내용】

### ■ 똑똑한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인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체험이 이뤄지고 있다.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자율주행 차량이 도착하며 해당 차량에는 안전요원 2명이 탑승해 있다. 자율주행차 체험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국토교통부까지의 4km의 거리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승체험은 체험단을 모집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이어진다. 특히,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과정을 영상과 함께 설명하고 '안전성'을 직접 보여준 점이 메시지 전달력과 소구력을 높였다.

### ■ K-방역 '위상'...독일서 한국산 방역용품 인기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로 한국의 방역물품들이 독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 자긍심을 갖게 했다. 독일인들은 국내산 마스크의 착용감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현지의 독일 소비자들의 반응과 매출 실적을 통해 코로나 방역 마스크와 당뇨 자가혈당측정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 ■ 신축년 맞아 '한·중 소띠 교류전' 눈길

'한·중 소띠 교류전'은 우리나라와 중국 두 나라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관련 옛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중국 명나라 때 만든 소 모양의 거울받침 등 신기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는 "소처럼 우직하게 천천히 가지만 언젠가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2021년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 ■ 보고픈 어머니..."코로나19로 베트남 못 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명절에도 베트남의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베트남 이주여성의 영상편지가 전해졌다. 설 명절임에도 먼 곳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주여성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큰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